

라오스, 중국의 바나나 농장 투자 · 운영 중단 명령

김미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(✉ mlkim@kiep.go.kr)

주요내용

- ▶ 2017년 6월 30일 라오스 비엔티엔 주당국은 비엔티엔 내 바나나 신규 투자 및 기존 허가 연장 금지를 공식 발표함.
- ▶ 라오스는 FDI 유입 다각화, 북부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하여 중국의 바나나 농장 설립을 허가하였으나 정부의 관리감독 미비와 농장의 화학약품 불법 사용으로 심각한 환경오염과 산업보건 문제가 발생하자 이번 조치를 시행함.
- ▶ 중국의 바나나 농장 투자와 운영은 중단되지만 중국의 농산업을 라오스의 저임 노동력과 토지를 필요로 하는 바 양국의 농업부문 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.

1. 이슈 현황

- ▶ 2017년 6월 30일 라오스 비엔티엔 주당국은 비엔티엔 내 바나나 신규 투자 및 기존 허가 연장 금지를 공식 발표함.
- 비엔티엔 농산림부는 바나나 농장주들에게 2017년 9월까지 바나나 재배를 종료하거나 바나나를 다른 상품작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함.
- 2017년 1월 라오스 정부가 보케오 주 중국인 소유 바나나 농장 18곳을 폐쇄한 이후 루앙남사, 풍살리, 우돔싸이 등 라오스 북부 6개 주 당국이 유사 조치를 발표함.

2. 원인과 분석

- ▶ 라오스는 FDI 유입 다각화, 북부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하여 중국의 바나나 농장 설립을 허가하였으나 정부의 관리감독 미비와 농장의 화학약품 불법 사용으로 심각한 환경오염과 산업보건 문제가 발생하자 이번 조치를 시행함.

- 2010년 라오스 북부 저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중국의 바나나 농장 설립은 2013년 북서부 비엔티엔 주를 거쳐 남부 지역까지 확대되었음. .
-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과일 수요 증가와 중국 내 토지 오염으로 인한 농지 부족으로 중국의 라오스 농업 투자가 증가하였음.
 - 중국의 대 라오스 총 투자액은 2004~09년 19억 달러에서 2010~15년 34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도 9.9%에서 14.6%로 증가함.
 - 같은 기간 광물·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이 63.6%에서 55.6%로 축소됨.
- 중국은 지주 혹은 정부와 토지 양허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출하였음.

그림 1. 라오스 바나나 재배 중단 주



자료: 저자 작성

그림 2. 국별 대 라오스 FDI 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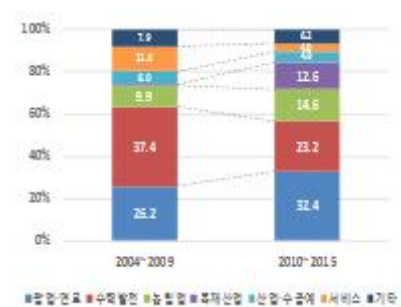
(단위: 십억 달러)



자료: CEIC (접속일: 2017.07.05.)

그림 3. 부문별 대 라오스 FDI 비중

(단위: %)



자료: CEIC (접속일: 2017.07.05.)

- 2010년 430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라오스의 바나나 수출액은 2016년 1.4억 달러를 기록하며 해당기간 연평균 79% 증가함.
 - 2016 회계연도 상반기(2015년 10월~2016년 3월) 바나나는 라오스의 농업 부문 최대 수출품목이며 생산된 바나나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수출됨.
 - 동기간 보케오 주의 대중국 바나나 총 수출액은 5천만 달러로 보케오 주 총 수출의 93%를 차지함.
 - 2010년 중국으로 수출된 라오스의 농산품은 곡물이 거의 유일하였으나 2011년 이후 과일과 견과류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며 대 중국 수출 품목이 다변화됨.

그림 4. 라오스의 바나나 수출

(단위: 백만 달러)



자료: UN Comtrade(접속일: 2017.07.03.)

그림 5. 라오스의 대 중국 농산물 수출

(단위: 좌측 백만 달러, 우측 %)



자료: UN Comtrade(접속일: 2017.07.03.)

- 그러나 라오스의 외국인 농업 투자 관리 미비와 중국 농장주의 맹독성 제초제 불법 사용 등 환경기준 미준수로 토양과 수원이 오염되고 열악한 산업보건 환경으로 인해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발병, 사망 사건들이 발생하였음.
- 라오스 북부의 기후와 지형은 중·남부와 달리 바나나 생산에 최적이지 아니며 중국인 농장주들이 라오스 토종 대신 상품성이 높으나 병해와 해충 다수에 취약한 캐번디시(Cavendish) 종을 재배함에 따라 화학약품 사용이 증가함.
- 2016년 라오스 농산림부 연구원에 따르면 라오스 북부 바나나 농장 근로자의 63%, 중부와 남부 바나나 농장 근로자의 35%가 질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2017년 5월 통론 시술했 라오스 총리는 중국인이 경영하는 바나나 농장의 광범위한 화학물질 사용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바 있음.

3. 전망과 시사점

➤ 중국의 바나나 농장 투자와 운영은 중단되지만 중국의 농산업을 라오스의 저임 노동력과 토지를 필요로 하는바 양국의 농업부문 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.

- 중국의 투자는 라오스의 수출 품목, FDI 유입 다변화, 고용 창출, 소득 증대에 기여함.
- 라오스 정부는 추가적인 오염과 농장 근로자의 발병 방지, 근로자의 일자리 전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오염농지 복원을 위한 방안도 강구중에 있음.
- 중국인 농장주들은 유독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재배가 가능한 사탕수수, 카사바 등으로 재배작물을 변경하고 있음.

- 2017년 5월 중국 외교부는 라오스 사태와 관련하여 “중국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에게 현지 법률 준수, 환경 보호, 사회적 책임 준수를 요청한다.”고 강조함.

□ 다만 2015~17년 중국인 혹은 그 소유를 대상으로 한 다섯 차례의 무장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라오스 내 반중정서는 양국 협력의 위협 요인임. **EMERiCs**

알립니다

-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에서 발간하고 있으며, 저작권 정책은 ‘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’에 따릅니다.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·변경·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.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△출처 표기 △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.
- 본 원고에 대한 글, 그림,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,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